

반성없는 현실에 대한 풍자와 야유 유하의 시집 「무림일기」

— 영화조감독 金性洙씨

지금 독사중

막역한 사이의 친구가 쓴 시를 읽는 즐거움은, 간혹 시기심이 시집읽기를 방해하겠지만,

동시대를 살면서 겪은 체험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김성수씨(30·영화조감독)가 유하의 시집 「무림일기」(중앙일보사, 1989)를 읽고난 느낌이 그러하다.

“대학시절에는 연극서클의 동료였고 대학원에서는 같이 영화연출을 전공, 고래심줄 같은 연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유하의 시세계를 정확히 이해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유하 시에 배어 있는 영화적 기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하의 시세계를 통속문화매체의 언어를 사용한 풍자시와 서정시로 나누는 김성수씨는 유하의 시가 ‘현실의 만화경’ 같다고. 무림일기 연작의 경우, 우리시대를 ‘武林’이라고 정의하면서 온갖 권위를 ‘정통종합검법’으로 가차없이 배어버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풍자는 일상적으로 대하는 낮익음을 낯설게 만들어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틀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주위 동료들 가운데 유하의 풍자가 너무 가볍고 치기어리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통속문화에 대한 혐오감이 초래한 지적 허영심이라고 반박합니다. 유하가 갖는 미덕은 이런 매체의 언어를 통한 현실의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사회학’은 영화 속의 상황을 현실과 연결시키는 몽타주 기법에 힘입고 있다. 「파리아마」는 이런 경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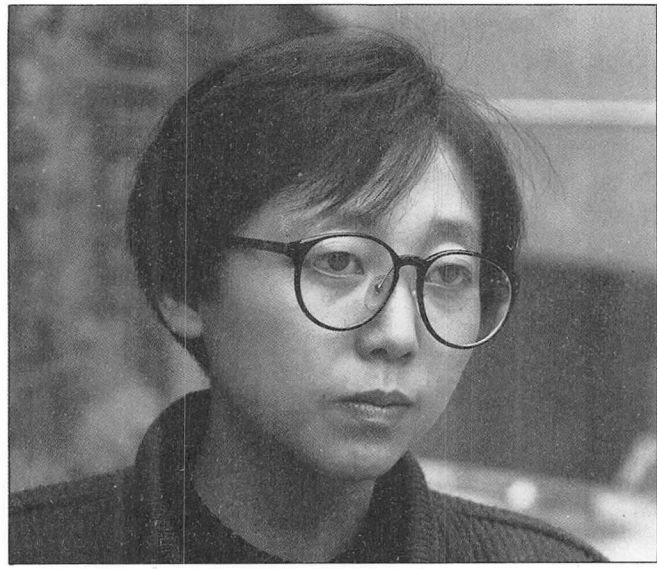
대표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뜨면 혁혁대는 화면은 잭싸게 / 보도본부 24시로 바꾸지 / 오늘도 반복되고 있을 포로노와 뉴스 / 그 충들의 몽타아즈” 같은 구절은 반성없는 우리사회의 ‘피스톤문화’에 대한 통렬한 비아냥거림이라고 김성수씨는 말한다. 영화연출 수업과 함께 시나리오도 쓰고 있는 김성수씨가 막 탈고한 작품은 최인석의 장편소설 「새떼」를 각색한 「그들도 우리처럼」.

「칠수와 만수」로 90년대 우리 영화계의 기수로 떠오른 박광수감독이 연출할 이 작품은 탄광촌을 배경으로 광부들의 삶과 이곳에 뛰어난 운동권 학생의 비극적 사랑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참가하고 있는 스태프 공동으로 각색한 것을 김성수씨가 대표집필한 것으로 현장체험을 얻기 위해 탄광촌을 5번이나 현지답사했다.

“한국영화에 대해 더 이상 동네북 치듯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애정있는 시선으로 격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아쉽습니다. 물론, 그 전제로 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진솔한 모습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겠지요.”

주로 문학작품을 많이 읽는다는 김성수씨는 시인으로는 이하석, 황지우, 이성복, 장정일씨 등을 좋아한다고. 유하의 이번 작품집은 다분히 영화적 기법과 맞아 떨어져 저작권(?)만 해결된다면 꼭 영화로 만들고 싶단다.

—이권우 기자



여성 사무직노동자의 실태보고 여성민우회 「사무직 여성의 현실과 운동」

— 회사원 禹賢禎씨

지금 독사중

지식의 ‘만물상’인 백과사전은 일반적으로 읽히기보다 서가의 책꽂이에 꽂혀만 있는 ‘고물상’이기 십상이다.

여성백과사전은 이와 같은 고답적인 백과사전의 통념을 탈피,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편집계획으로 근년들어 여러 곳에서 새로운 편찬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여성백과는 주로 일본백과사전을 무단으로 번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여성백과를 개정하면서 국내 전공학자들이 새롭게 집필했고, 주요항목은 記名기사회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앙일보사가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여성백과 편찬실에 근무하는 우현정씨(27)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백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래서 여성백과의 주소비층인 고졸이상 사무직 여성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손에 든 책이 「사무직여성의 현실과 운동」(한국여성민우회 엮음, 석탑, 1989)이었다고.

여성문제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오던 우현정씨에게 충격을 준 자료집이었다는 이 책은 여성 사무직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항목의 질문서를 만들어 여러 유형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여성백과의 기본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것들이 현실적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과소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실수요자에게는 상대적 열등감을 불러 일으켰으리라고 추측되었기 때문이죠”

건축과 인테리어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우현정씨로서는 그런 문제가 직접 피부에 와닿았다고.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돈이 많이 드는 값비싼 장신구를 제외하고 폐품활용 등 주변 소도구를 이용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의 조사에 의하면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은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거의 읽지 않고 에세이류를 읽고 있어 이들이 베스트셀러 유발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아쉬웠던 점은 이같은 실태보고뿐만 아니라 열악한 조건과 즉자적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도적인 여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여성 스스로 직장의 ‘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생활인으로서 ‘홀로서기’해야 한다는 우현정씨의 여성해방론은 특이하다.

“여성해방이라고 불리는 남녀차별 해소는 여성만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해방은 진정한 의미의 남성해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성이 우리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할 때, 남성들만이 져 왔던 가정경제의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권우 기자



여성이 버리고 찾아야 할 '꿈' 박완서 소설집 「그대 아직도…」

— 회사원 林英心씨

지금 독서중

책 만드는 일에 매력을 느낀다는 林英心씨 (26·동서문화사)는 박완서의 소설을 즐겨 읽는다. 이야기꾼답게 이야기를 구수하게 엮어가는 점이나 적당한 이야기 전개속도, 보통사람들의 모습을 정겹게 묘사하는 점들이 좋다고 한다.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수필집을 처음 대한 뒤 박완서의 작품을 꾸준히 읽는 편인데, 최근 출간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삼진기획)도 만족스럽게 읽고 있다. “이혼녀인 주인공이 새롭게 사랑하면서 여성으로서 겪는 고통, 수모를 그린 소설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쯤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고, 여성은 불평을 늘어놨선 안된다는 등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여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많이 향상된 듯이 보이지만 이 소설을 보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임영심씨는 밝힌다.

“무엇보다도 여성은 심리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떠난 뒤 자립해야 하는데도 여주인공은 심리적으로는 매어 있거든요. 작가는 후기에서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그 엄연한 현실이 혹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꿈’이라 표현하고, 여성들은 꿈에서 깨어나라고 주문하지요.”

작가는 여성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성을 묶고 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길을 지적한다. “작가의 초기작품에 비해 때 근래 소설들은 개인보다는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작중인물들은 여전히 친숙함과 다정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중인물들이 독자에게 친숙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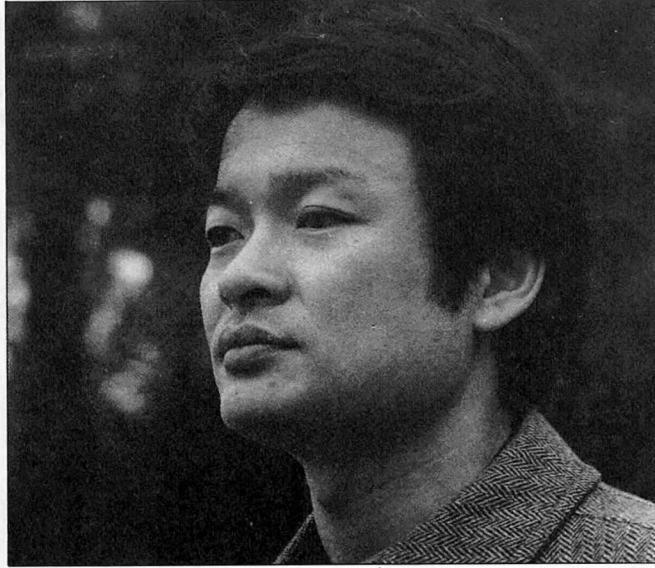
그래서 임영심씨는 박완서의 작품들은 편안함을 준다고 말한다. 후덕한 동네아주머니의 체취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도시중산층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고.

“감상적인 어휘를 구사해서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는 유형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에서 상식이 얼마나 우롱당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상식의 부재가 가져오는 불행에 대해 상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재검토하고 건설하기 위한 작가의 힘이 제겐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한 지 만2년이 되는 임영심씨는 오는 3월이면 신부가 된다. “친구들은 내게서 사회생활 경험에 비해 결혼을 서두른 듯한 느낌을 만나봐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일은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 제 생활을 단절적인 것으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한 설계도, 자신감도 탄탄하게 세워진 상태. 결혼식 일정을 잡고 혼수살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될 사람과 싸움이 잦아졌다고 하면서도 결혼에 대한 기대가 더 커 보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 홍현숙 기자



전쟁, 혹은 추악한 이기심의 불꽃 황석영의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

— 시인 김갑수씨

지금 독서중

얼마전 상재한 첫시집 「세월의 거지」로 벌써부터 평단의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인

김갑수씨(32·웅진출판사 기획과장)는 오늘날의 우리사회를 개인의 이기심들만 서로 충돌하는 불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파악한다. 그같은 불화의 관계를 그는 “사랑에는 순탄하던 험악하던 모두 제 갈 길이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은 전혀 그런 길이 없다”고 말하며 “험악한 사랑의 길마저도 없다”고 탄식한다.

직장에서 말고 있는 업무상 우리나라 자연의 생태학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각지를 돌아다녀 보지만, 늘상 발견하는 것은 심각한 자연오염일 뿐 이제는 “퐁텐이도 장수하늘소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 그의 우울한 진단이다. 그런만큼 더더욱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자연간의 화해로운 미래의 전망을 찾아 방황하는 그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황석영의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형성사, 1988). 미국에 의해 이국땅 월남에서 타율적으로 전쟁에 휘말리는 한 한국인 병사가 전쟁의 폭악한 본질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사실주의적 필치로 정치하게 그려진 작품이다.

“똑같은 제3세계권의 피압박민족이면서도 베트남인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동원됐다는 ‘용병의식’을 떨치지 못하던 주인공 안영규가 결국엔 제3세계 민족해방의지에 공통적인 유대감을 확인하게 되죠. 특히, 대학생출신의 ‘베트남전사’가 사살당하는 것을 보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 결코 적일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교묘하게 드리워져 있는 ‘무기의 그늘’을 발견하게 되는 부분은 자못 인상적입니다.”

여기서의 ‘무기’를 김갑수씨는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문명의 극치로 해석한다. ‘그늘’은 그 문명의 극치가 이뤄낸 인위적 질서에 의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 세계의 황폐화를 이름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그의 말.

“현대전쟁의 배후에는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본의 속성은 탐욕이고 그 탐욕의 극대화가 전쟁으로 표현되죠. 그런 점에서 자본의 힘을 ‘세계정복운동’으로 갈파한 마르크스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베트남의 정글이 전쟁으로 불타오르듯, 오늘 우리의 세계에도 추악한 이기심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고 본다면 지나칠까요.”

나아가 그는, 화폐의 사용가치는 간접화된 채 교환가치로만 규정되는 현대 사회엔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명민한 시인의 자의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그의 생각이 순수한 사랑의 길로 연결되는가 하면, 험악한 사랑에 대한 목마른 그리움을 향하기도 한다.

베트남전쟁에서 알게 되었던 그 어느 얼굴과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주인공 안영규의 앞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조국의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작품의 결미는, 그래서 더욱 김갑수씨에게는 의미심장하다

— 반경환 기자